

“불교의 제일 덕목은 참회”



산 스님은 ‘그게 아니다’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면 그쳤어야 하는데,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아상(俄相)을 세우는 남자들에게는 앉은 자세에서 바로 이단옆차기를 날렸습니다. 그렇게 엄하던 분이지만 그 순간만 지나면 불바람처럼 다 잊어 버리는, 자애로운 분이셨습니다.”

맹호부대원으로 월남 파병까지 다녀온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일장 스님은 전역 후 고향을 지고 선방을 다녔다. 송광사, 봉암사 등 제방의 선원을 돌며 공부하던 스님을 괴롭힌 것은 유난히 약했던 심장이었다. 일장 스님은 “심장이 안 좋았던 탓에 참선 중에 상기되며 숨이 가빠지기 일쑤였다. 대중스님들에게 피해주기가 싫어 토굴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토굴살이를 하다 보니 참 자유로웠어요. 공부 거절되는 것도 아니었고, 방일하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기 시작한 책이 성철 스님에게 받은 <만선동구집>이었어요.”

스님은 한 글자씩 육필을 찾아가며 3년동안 <만선동구집>만 봤다. 꼼꼼하게 정리한 것을 도반스님들이 책으로 만들어 함께 보자고 권해서 책도 펴냈다.

“작은 것을 모아 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불도(佛道)로 회향하는 길입니다. 자연 삼라만상 모두 불법 아닌 것이 없어요.”

일장 스님은 “입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비롯된 생활습관이다. 습관 들어 익숙해져서 수월해지는 것이 입”이라며 “수행은 나쁜 습관(業)을 바로 ‘고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러 스님은 “불자라면 스스로 자신을 고쳐나가는 만큼 돌이켜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불교의 제일 덕목은 참회입니다. 매일 본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 수행이지요.”

일장 스님은 “절은 자기를 낮춰 남을 높이는 행위”라며 “절에는 불교 전체 교의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하심하면 아무 장애가 없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합리적이고 윤곽하고 세련됐다든 지금 세상이 인간을 근원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옛날에는 책 구하기가 어려워 일일이 손으로 베껴줬어요? 쓰다보면 저절로 공부가 됐습니다. 부처님 전생담 가운데 ‘살산동자의 구법’에 보면 ‘제행무상(諸行無常) 시생멸법(生滅法)’의 다음 구절인 ‘생멸법이(生滅滅已) 적멸위락(寂滅爲樂)’을 듣기 위해 절벽에서 몸을 던지기도 했습니까? 지금은 어떤가요? 논리나 가르침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동안 가물었을 때 일이다. 산중에 위치한

황매암에서도 물이 부족했다. 단채로 나그네들이 오고가면 물이 푹 떨어졌다. 그래서 붙여진 “실내의 수세식 화장실 대신 실외의 해우소를 이용해 달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결과는 소용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공감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실내 화장실을 써버리고 말지 실천으로 나가질 못하더군요. 백 마디 푹푹한 말도 필요 없어요. 지금 배우고 있는데도 한 가지씩만 실천하도록 마음을 내면 세상이 바뀝니다.”

일장 스님은 “우리는 위선에 찌들어 숨는 것을 점잖다고 생각하고 표정 없는 것을 문화인이라 포장하지만 도(道)는 진솔한 것”이라 말했다.

“부처님 앞에 돈만 놓고 108배한다고 소원이 이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실제 행동하는 생활이에요. 오늘 이 순간 자기를 돌아봅시다.”

황매암발처럼 숭고하게 도인의 욕망 아닌 욕망을 진득 누리며 사는 스님의 법문이 끝났다.

황매암을 나서는 길, 오던 길 나그네의 머리를 가득 채웠던 도량 주변의 황매꽃과 오조 황매홍인 화상은 어느새 일장 스님과 하나가 돼 있었다.

글=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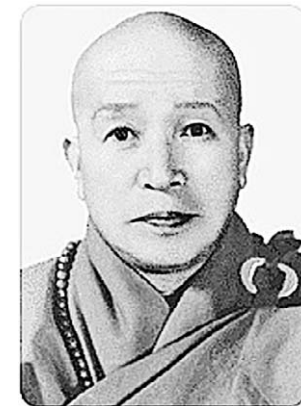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44. 영산법화사 법화 스님

새벽 3시 어디선가 목탁소리가 들려온다. 천천히 진해할 일대를 돌아 묘법사까지 돌아가면 아침 5시가 된다. 한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를 따랐다. 묘법사에 이르러 아침 정근을 하고, 함께 공양을 하자고 하여 일본식 탁자 위에서 공기밥을 먹었다.

“나는 1912년 경기도 시흥서 태어났소. 39세에 불법을 알아 수천 권의 책을 읽고 <법화경>만이 세상을 구하는 약방문으로 알고 포교행각을 나섰소. 1947년은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친에 고아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52년 창원 성주사고 암 스님께 계를 받고, 1957년 ‘만법만년 색심불이 관심본존(萬法萬年 色心不二 觀心本尊)’의 대만다라(大曼多羅)인 <나무묘법연화경(南無妙法蓮華經)>을 기

금지시간이라 금지하였는데, 이 대통령께서 특별히 풀어주어 3년 동안 하루 아침도 빠지지 않고 도량식을 하였다. 나도 이 스님의 영향으로 <법화 3부경>을 번역하였는데, 확인들이 말하기를 “법화 스님은 일본말을 번역한 것 같기 때문에 우리말 한문투로 해주었으면 좋겠다”하여 번역했지만 먼저 번역하신 어른께는 매



선정과 계행을 통해 사회윤리를 형성해 갔는데, 장차 상법(像法)이 이루어지면서 중생들이 여러 가지 상에 빠져 혼돈을 일으키므로 차라리 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여 <법화경> 계통에서는 대부분이 제목 봉장을 주로 하고 있다.

생각해 보면 성문(聲聞)과 연각(緣覺)이 독선기신(獨善其身: 남을 돌보지 않고 홀로 그 몸을 닦아 품덕(品德)을 기른다)하고 보살불교가 세계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일인일기(一人一技)만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다. 그러므로 만인공기(萬人公器)를 가지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참회하고 청정하며, 사회사업을 더불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이러한 열불 참선법이 조직적으로 발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쨌든 한국 불교에 있어서 노천(露天)포교는 원호대사 이후 이 법화 스

“법화경”만이 세상을 구하는 약방문”... 불교포교 선구자

본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차 서울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우이동에 조그마한 땅을 하나 구해놓았으니 서울서 만납니다.”

나는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 말을 낮추시라 하면 꼬박꼬박 존대 말을 써 송구스럽게 생각하였다. 나는 당시 형님께서 해군 군의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내려 갔다가 만나 받게 된 것이다. 일 본식 장상에 남자를 두르고 계셨는데, 기상이 매우 진취적이고 긍정적이라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 뒤 서울 명륜동에 영산법화사 출판부를 내고 <반야심경 강 의> <법화 삼부경> <일연대사 유문집> <묘법연화경> <어린이 동화집>을 내어 포교하였기 때문에 자주 뵈고 법문을 들었다. 우리나라 불교포교에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다.

서울에 올라와서는 나라를 위해 아침 정근을 경무대를 중심으로 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통행

우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법화경>을 번역하고 나니 <법화경 계환소>에 대하여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로 인해 <법화경 강의> 본을 내게 된 것이다. 우리들은 통불교적인 입장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묘법연화경>을 법신의 상징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하나의 경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법화 스님께서서는 바로 그것이 ‘진불(眞佛)·진법(眞法)·진승(眞僧)’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제목 봉장을 통해 깨달음을 이끌어 내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일연 스님이 ‘화중생연(火中生蓮: 불속에서 연꽃이 핀다)’하여 일본이 사는 길은 오직 <묘법연화경>을 읽고 실천하는데 있다고 하였는데, 일본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을 통해 많은 양화(殃禍)를 겪었기 때문이다.

옛날 부처님 당시는 지혜가 본위가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님의 목탁석이 으뜸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루는 경무대에서 이 대통령께서 이 소리를 듣고 불려오라 하여 들었다.

“누구를 위해 이렇게 새벽 같이 예불 하십니까?”

“세계와 중생을 위하되 우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합니다. 찬 공기에 감기 들까 걱정되니 이곳에 오시거든 언제나 따뜻한 차 한잔 드시고 가십시오.”

하여 한 때는 경무대에서 차공양을 받기도 하였다.

법화 스님께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일본 일연종 스님이다. 일본은 일생동안 세계평화와 인류구제를 위해서 영적헌신에 절이 없는 것을 보고 10년동안 기도하여 간디 수상을 만나 법화사를 지은 유명한 스님이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저등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저등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쥬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쥬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쥬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